

‘전주 발전 염원’ 시민 목소리 현장서 듣는다

우범기 시장, 효자5동주민센터서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첫 일정 나서… 시정 운영 방향 공유·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우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역을 위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4일 효자5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효자5동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함께 하반기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2025년 시정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분야 18대 전략에 대한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시정 운영 방향 공유 뒤, 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효자5동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효자5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대한방직 공장부지 복합개발 사업 △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효자5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효자5동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함께 하반기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황방산 터널 개통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효자5동의 향후 시정발전엔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우 시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답변 후에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시는 이날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

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총 8개 동을 순방했으며, 21대 대선 일정 등으로 소동 행보를 잠시 중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날 효자 5동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2~4개 동을 방문할 계획이며, 오는 8일 진북동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지난 1일부터 완산구에도 빈용기(공병) 반환수집소 운영을 시작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시작

전주시, 완산구에 설치… 반환하면 보증금 현금으로 지급

전주시가 지난 1일부터 완산구에도 빈용기(공병) 반환수집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완산구에 설치된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자전거경륜장 내 서11 앞 유희부지(완산구 백마산길 22-14)에 설치됐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상주 인력이 있어 누구나 반환수량의 제한 없이 편리하게 공병을 반환할 수 있다.

제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병, 맥주병, 음료병 등 빈용기를 반환하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있던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따라 병의

용량별로 10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환급된다.

이번 반환수집소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일반 소매점에서 1인당 하루 30명까지만 반환할 수 있던 제약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공병 반환 편의성을 높이고, 소매점의 공병 보관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력하여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빈용기(공병) 회수체계를 도입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세계 70여개 도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 모색

오스트리아 비엔나서 열린 ‘세계도시 정상회의의 시장포럼’ 참석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 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시장포럼’에서 세계 70여개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과 정·재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의 문제를 논의하고,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교환하며, 우수한 사례를 공유함

으로써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다.

올해 회의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적 정책, 세계적 영향(Livable and Sustainable Cities: Local Actions, Global Impact)’을 주제로, 도시 간 협력과 공동 해법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운동목 부시장은 “이번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전주시가 올림피아와 같은 국제대회 유치 등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 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시장포럼’에서 세계 70여개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 대응 나서

전주시가 최근 타 시군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작업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연합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해 19개 수행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노인 일자리 워크숍 안전 간담회에서 지적된 △차도 내려가 쓰레기 줍기 △도로를 등진 채 작업하기 등 구체적 위험 사례를 생생히 재연한 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작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와 현실 밀착형 시나리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영상에 자막을 추가해 시청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전주시니어클럽, 전주시원시니어클럽,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일자리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



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후 시는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각 수행기관에 정기적 시청을 독려하며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운영해 영상 내용을 현장 실습과 연계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전주시는 지난달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징

수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세수 신장률 △반호관 영치 실적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목표달성도 △부동산·자동차 공매 실적 △현안업무 추진 성과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 재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선

진 세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세자 중심의 홍보활동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강력한 체납세 정리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형별·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해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